

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, 농업용 안전용품 150만원 상당 전달

✎ 이순호 기자 | ⓒ 승인 2026.09.09 13:09

| 안동시4-H연합회 통해 청년 농업인 대상 안전용품 전달... 온열질환 예방 지원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ⓒ국제아이저널

[국제저널 = 이순호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(지사장 박승표)는 9월 8일 안동시4-H연합회에 약 150만원 상당의 농업용 장화 등 안전예방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지원은 늦더위와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 농업인들의 건강한 영농활동을 돕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. 특히 청년 농업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전달된 안전용품은 안동시4-H연합회를 통해 야외 농작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과 지역 농가에 배부될 예정이며, 햇볕과 무더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물품으로 활용된다.

박승표 지사장은 “농업인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데 이번 물품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”며, “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이순호 기자 ijj@ijj.co.kr

저작권자 © 국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